

[QT세미나]

크리스마스는 마리아의 QT에서 시작됐다?

이상규 목사 / 1998 / 페이지수: 3

“주께서 눈을 열어 주시는 순간 모든 구태의연한 일상성을 깨뜨리고 들어온 영원한 빛의 조망 앞에 서게 된다.”

아이를 잉태하듯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아기를 이 땅에 탄생시킴으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이 역사에 선사한 여인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이다.

자신의 본질 깨달은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1,37). 이에 대하여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하였다. 즉 마리아는 그날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요셉의 아내’가 아닌 ‘주의 계집종’으로서 받아들였다. 그것은 피조물의 가장 깊은 본질을 열고 창조주의 절대적 능력을 믿으며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창조와 구속의 위대한 사건들이 터진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1백배로 결실하는 천국사건이 경험된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QT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상적 제자 상이다.

아래의 도표는 이와 같은 마리아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우선 이 도표 자체를 잠시 고찰하며 생각해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이 중심 장소로 이동한 이유’들은 로마의 식민지요 종교민족이었던 이스라엘로서는 결코 특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 경제적(군대 징집과 세금징수를 위한), 전통적(장자봉헌, 유월절절기 지킴) 사건들이었다. 사실 우리 역시 오늘날 이러한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신앙전통들에 의해 바빠 오가고 있지 않은가?

IMF로 인한 자리아동이든가, 유아세례, 절기마다 있는 교회행사 등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종교적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은 때론 불평하거나 피곤해하고 혹은 기뻐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만 해도 온 세계는 작년과 다름없이 크리스마스이기에 행사하고 들떠서 아우성칠 것이다. 이것이 ‘지상의’ 일들인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은 어떠한가? 이 도표에서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이 중심장소로 이동한 이유는 ‘지상적 이유’에서이고 이 사건들 자체로서는 피곤하기도 하고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 사건들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알고 나서도 늘 하던 대로의 불평 혹은 들뜬 즐거움이 가능하겠는가?

누가복음 2장의 문학적 구조

단락과 중심장소	마리아와 요셉이 중심장소 이동한 이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보냄 받은 장소와 증거	전달된 계시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I (눅2:1~20) 베들레헬	호적하라는 가이사 이구스 도의영에 의해(눅2:1~5) →베들레헬으로	주(2:15) ↓ 천사(2:8~14) ↓ 목자들→	“다윗의 동네”로 가게함(2:11,12) 예수에 관하여 증거 (2:17)	①듣는 자가 다 기이히 여김 ②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함
II (눅2:21~39) 예루살렘성전	주의 율법에 쓰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2:21~24) →성전으로	성령(2:25~35) ↓ 시므온(안나)→	“성전”으로 인도(2:27) 예수에 관하여 증거 (2:33)	①요셉과 마리아가 기이히 여김
III (눅2:40~52) 아버지집	유월절 절기의 전례를 좇아 (2:41~42)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 아들 예수→	“아버지 집”에 머물게 함. 예수 자신이 증거(2:46,49)	①성전의 선생들 및 듣는 사람 모두 기이히 여김 ②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둠

마음속에 간직한 하늘의 계시

도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과 ‘그들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듣는 자는 모두 ‘기이히 여겼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제 정신을 잃었다.’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 일상적, 지상적 사건들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들은 마리아의 태도이다. 마리아는 단순히 놀라기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던’(눅 2:19~51) 것이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 처음 하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 보잘 것 없었던 시골처녀의 태속에 예수를 잉태케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에 관한 하늘의 관점들을 다시 들을 때 역시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들을 듣고 결코 잊지 않도록 마음 속 깊이 간직(keep carefully)함으로써 이미 탄생하신 예수를 100배로 결실하기까지 키워갔던 것이다.

나를 향한 하늘의 관점

이 원리를 우리가 늘 하는 QT에 적용해 보면, 성경을 읽고 본문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습관이요 일상적 사건일 수도 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즐겁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중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성령으로 눈을 열어 주시는 순간(!) 그 본문은 나를 향하신 하늘의 관점과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놀라고 경악한다. 모든 구태의연한 일상성을 깨뜨리고 들어온 영원한 빛의 조망 앞에서 서게 된다. 이렇게 하여 ‘마음 밭’은 그 ‘말씀의 씨’를 받게 된 것이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마리아처럼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씨를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 계속 키우며 적용한다. 그리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의 변화(100배의 결실!)를 경험하게 된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성령님은 저 옛날 가브리엘이 그랬듯이 날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마리아들을 찾느라고 지금도 온 교회를 헤메고 있으신 지도 모른다.

* 출처: QT신문